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이 없으니(胡地無花草)/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春來不以春)” 이 시구(詩句)는 중국 한(漢)나라 때 북쪽의 흉노 추장에게 정략적으로 시집보내진 궁녀 왕소군(王昭君)의 처지를 읊은 것이다. 왕소군이 끌려간 추운 오랑캐 땅에는 봄이 와도 풀한 포기 돋지 않는다. 그러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았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봄을 맞은 사람은 왕소군뿐만 아니었다. 757년에 두보(杜甫)는 장안의 봄을 이렇게 노래했다. “나라가 부서져도 산과 내는 남아 있어(國破山河在)/ 장안성에 봄이 드니 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목이 무성한데(城春草木深)/ 시국을 생각하니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感時花濺淚)/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도 놀라는 가슴(恨別鳥驚心)” 안록산(安祿山)의 반란군에 점령당한 장안성에도 어김없이 봄이 와서 초목이 무성하다. 그러나 반란군에 붙잡혀 유패 생활을 하고 있던 두보는 나라 걱정, 가족 걱정에서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새소리에도 가슴이 놀란다”고 했다. 안록산이 두보로부터 봄을 빼앗아 갔으니 그야말로 ‘춘래불사춘’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겪은 지난봄들도 ‘봄 같지 않은 봄’이 많았다. 시인 이상화(李相和, 1901-1943)가 1926년에 느낀 봄은 어땠던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다 같은 눈길을 따라 짐승을 가듯 걸어간단다”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 자문(自問)해 보지만 자연의 봄은 분명히 와 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끌려 ‘봄 신명’에 집힌 듯 ‘밭골이 시도록’ ‘꿈속을 가듯’ 봄

들판을 걷는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걷는 걸음이다. 이상화의 봄은 ‘웃음’과 ‘설움’이 뒤섞인 봄이다. 이 시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로 끝난다. 그러나 당시 이상화의 봄도 ‘춘래불사춘’이었을 것이다. 일제(日帝)가 이상화로부터 봄을 빼앗아 갔던 것인데, 그는 끝내 진정한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해방이 되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

1980년의 봄은 또 어땠는가. 80년 ‘서울의 봄’은 계절의 순환에 따른 자연의 봄과 함께 찾아온 마음의 봄이었다. 기나긴 유신 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열어붙은 겨울 공화국의 차디찬 얼음을 녹이는 봄이어서, 모두들 화창한 봄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서울의 봄’은 너무나 짧게 끝났다. 전두환이 우리에게서 봄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춘래불사춘’을 되새겼다.

전두환은 1997년에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정금 2205억 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추정금

중 1030억 원만 강제집행 되고 나머지는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며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최근에는 ‘전두환 회고록’을 집필하여 뻔뻔하게도 자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제물이었다”고 주장했고 그의 부인 이순자 씨는 한술 더 떠서 ‘내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소도 웃을 발언을 했다.

2019년 서울의 봄은 어떤가? 올해도 어김없이 개나리와 철쭉과 목련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천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너무도 아름다운 계절이다. 봄에 피는 꽃들이 너무도 아름답기에 이를 사랑하는 추위가 심술을 부리기도 하지만 봄은 여전히 찬란하다. 그러나 서울엔 초목이 무성하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도 봄 같지가 않다. 이 찬란한 계절에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이다.

‘서울의 봄’은 너무나 짧게 끝났다. 전두환은 부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서 봄을 빼앗아 가고 있다.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꽃들도 흔탁한 미세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정말 ‘춘래불사춘’이다. 봄을 봄답게 즐길 수 있는 날은 언제 오려나.

NGO칼럼

휴전선 철조망 앞에서 평화를 외치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DMZ평화피티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상임의장

‘해남 YMCA, 34명 5시 출발.’ 4월 27일 새벽 5시 6분 ‘DMZ평화피티기운동 광주전남상황실’ 카톡방에 올라온 문자 내용이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모인 광주·전남 인사가 3000명을 넘었다. 전날 혹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평화누리공원에 모인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5000명을 넘었다. 이날 서쪽 강화에 서부터 동쪽 고성까지 500여 km의 휴전선에 모여든 전국 인사들은 약 2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휴전선 철조망 앞에 선 것은 남북 분단 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낮 12시 20분부터 평화누리공원에서 광주·전남본부가 진행한 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최강은 상임본부장이 사회를

보고 최영태 상임 의장이 인사말을 한 데 이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옥 전남도교육감이 학생 두 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전남 가족 연대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흥사단 거리기 합창단과 푸른솔합창단의 ‘철망 앞에서’ 등 노래 공연, 김준태 시인의 ‘평화의 시’ 낭독, 최보결 안무 팀의 ‘평화의 춤’ 공연 등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안무 팀과 함께 춤도 추었다.

오후 1시부터 3000여 명이 줄을 지어 DMZ 안으로 들어갔다. 철조망을 따라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전날 비가 내렸고 다음 날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지난날 27일의 날씨는 맑은 하늘과 미세먼지 없는, 걷기에 최적의 날이었다. 하늘이 분명 우리의 ‘DMZ 소풍 놀이’를 돕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광주·전남이 떠맡은 거리는 약 5km였다. 단체마다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다. 맨 안쪽에 배치된 ‘전남대 민주동우회’는 왕복 10km를 걸어야 했다. 오후 2시 27분, 임진각 DMZ를 비롯하여 휴전선에 온집한 20여만 명이 ‘남북통일! 한민족 만세!’를 동시에 외쳤다. 목련의 시간대에 이어 각자 준비해온 꽃 한 송이를 철조망에 꽂았다. 분단으로 고통받고 회

생당한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 여기저기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철망 앞에서’ 등의 노래를 불렀다. 춤도 추었다. ‘DMZ로 소풍 가자’는 표어처럼 평화와 통일 운동을 소풍 가듯 일상적 삶의 주제로 만들고 있었다.

1400여 년 동안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하던 우리가 74년 전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렸다. 4·3 제주 항쟁, 6·25 전쟁, 5·18 광주 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적 사건 대부분은 남북 분단을 근본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0년과 2007년, 그리고 1년 전 남북 정상들이 만나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제 스포츠 경기 때는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했고, ‘제3의 코리아’ 팀까지 출전시켰다.

남북이 평화 속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민족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면 사실상 절반의 통일은 달성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2000년 6·15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될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마다 어김없이 방해꾼이 나타났다. 우리가 4월 27

일 임진각 철조망 앞에 모인 이유는 분명했다. 미국에게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그리고 남북한 간 대화를 방해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자주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라는 격려와 채근을 하기 위해서였다.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대 500마리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다. 이 동화 같은 실화는 그 후 금강산 관광과 6·15 정상 회담 등 남북 관계에 훈풍을 몰고 왔다. 이처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화피티기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우리는 남북을 갈라놓은 철조망을 넘어버리고 냉전의 상징인 DMZ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계속 전하고 싶다. 금년 7월 광주에서 세계수영대회가 열린다. 전 세계 선수단과 광주시민이 함께 수영장에서 5·18 광장까지 평화 피티기 운동을 전개하자. 북한 선수단·응원단이 참여하면 금상첨화이다. 평화 피티기 운동이 남북 관계에 새로운 훈풍을 몰고 오기를 기대한다.

社說

‘5·18 진상 규명’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이 열릴 날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 책임 방기로 진상 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다 되도록 5·18 진상조사 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가 하면 5·18 왜곡 처벌 특별법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촛불 혁명 이후 ‘5월 광주’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방부 특조단이 헬기 기종 소사를 입증하고 여성가족부 등 정부 공동 조사단이 계엄군들의 잔악한 집단 성폭행 등을 확인했지만 발표 명령자 등 핵심 사안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진상 규명에 그동안 비협조적이었던 자유한국당 탓이 크다. 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송방량이 정계를 내린 데다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도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광주 민심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황교안 대표 역시 몇차례 광주 송정역에서 패스트트랙 규탄 대회에 참석했다가 물세례 등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렇다 해서 호남 민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눈길도 고운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5·18 조사 위원 선정 과정에서 지도부의 친소 관계가 작용해 한국당에 시비 상정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5·18 왜곡 처벌 특별법과 5·18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조사 위원 자격에 대한 개정 법안을 제출한 만큼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여야 정치권은 최소한 올해 5·18 기념식 이전에 두 가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제 오월 영령들에 대한 도리다.

‘전국의 5·18’ 그들 있어 우린 외롭지 않았다

광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린 ‘전국의 5·18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기하·김태훈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열사들,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5·18들’이란 이름을 처음 작명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2년 전,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렇게 이름을 불어 준 것이다.

전국에서 ‘5월 광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다 세상을 등진 127명의 영령들. 그들을 기리는 전시회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5·18 39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회의 이름 역시 ‘전국의 5·18들’이다.

전시는 80이후 전국 각지에서 5·18 민중항쟁을 알리며 오월의 영령으로 산화한 열사들과 그들의 행적을 보여 준다.

문 대통령이 작명한 ‘전국의 5·18들’이라는 이름으로 127명의 열사들을 한자리

에서 부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에서는 ‘80년대 주요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시기별 민족 민주 열사들, 알려지지 않은 ‘5·18 진상 규명 시위’들, 그리고 열사가 마지막 남긴 말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난 2일 이미 시작된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6일까지 계속된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당시, 이들이 그날의 참상을 서울·부산·대구·대전·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소리 높여 알리려 했음은 항쟁 이후 광주가 결코 외로운 섬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전국의 5·18들’이 없었다면 광주의 진실도 널리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기록관 측이 모든 열사의 얼굴을 전시회에 담아 보려 했지만 그중 18명은 영정 사진조차 구하지 못해 빈칸으로 남겨 놓았더니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5·18 진상 규명을 외친 많은 희생자들 관련 자료 수집은 물론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과 마래 2터널을 잇는 해안도로변을 주의 깊게 살피면 ‘만성리 형제묘’가 눈에 띈다.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저리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한글로 ‘형제묘’라 쓰인 돌비와 한자로 ‘원혼비’(冤魂碑)라 쓰인 작은 나무 비를 만나게 된다. 분본은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해 평평해졌다.

이곳에는 1949년 1월 13일,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주민 125명이 잠들어 있다. (현 중앙초등학교) 건물에 부여함 의자로 수용됐던 이들은 재판 절차

71년 만의 해원(解冤)

를 거치지 않고 끌려 나와 총살됐다. 시신은 기름을 부어 불태워졌는데 나중에 시신을 분간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한 봉분에 묻고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는 뜻을 담아 ‘형제묘’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는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란 이름의 묘역이 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20일, 경찰과 군은 예비 검숙한 한림읍과 모슬포 주민들을 ‘삼오름’에서 집단 총살했다. 군경은 학살 범

죄를 감추기 위해 유족들의 시신 수습마저 방해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6년이 지난 1956년 5월에야 양수기로 용당이 물을 빼내고 유골을 발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골이 뒤엉켜 있어 신원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유족들은 132개의 칠성판 위에 뼈를 적당히 맞춰 안장하고 ‘백조일손지지’라고 명명했다. ‘각기 조상이 다르지만 132명의 자식들이 한날한 시, 한곳에서 죽어 뼈가 엉겨 하나가 되었으니 한 자손’이라는 유족들의 피울음이 담겨 있다.

여수와 제주도의 슬픈 역사는 닮았다. 여순사건과 4·3사건으로 맞이여져 있기도 하다. 당시 여수와 순천에서 1만5000여 명, 제주에서 3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낸 재심 재판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71년 만에 희생자와 유족들의 원통한 마음을 푸는 ‘해원(解冤)’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번 재심 결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고

전남에서 영그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허브’의 꿈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지난 2009년 4월 북미에서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가 대유행병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이 사전 구매 계약을 통해 독감 백신을 대부분 선점하면서 독감 백신 생산 기술이 없는 많은 국가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5월 초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점차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생기면서 신종 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신종 플루가 대유행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고 독감 백신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는 구세주가 나타났다. 2004년 시작된 정부 사업으로 국

비 162억 원과 민간 자본을 투자하여 전남 화순에 건설된 독감 백신 공장에서 2009년 11월부터 백신 생산이 시작되었다. 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는 독감 백신을 거의 반값에 조달하여 전국의 초·중·고교에 일제히 독감 백신을 접종 받게 되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여유 있게 신종플루를 퇴치할 수 있었다.

화순에 들어선 백신 공장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곳으로서 2009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다. 화순 공장에서 백신이 생산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 전세계에서 아홉 번째 백신 생산 국가가 됐으며 한국의 백신 주권을 전남이 지켜내었고 국민 건강도 전남이 지켜낸 셈이다.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생명과학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은 이제 아시아에서 백신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순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감염 질환용 예방 의약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응용한 면역 항암제로 대표되는 치료용 백신 생산으로까지 발전을 꾀

하고 있다. 항암제는 1세대 화학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및 3세대 면역 항암제로 구분하는데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바로 백신을 이용한 항암제이다.

전남도는 백신 산업 분야 중 부가가치가 높으며 시장이 훨씬 크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암 백신 치료제 등 차세대 백신 치료제를 생산하도록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전남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백신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전남도가 이러한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면역 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총 200억 원)에 이미 착수하였고, 면역 치료 백신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460억 원 규모의 ‘국가 면역 치료 혁신 센터’ 유치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전남은 매실, 녹차, 울금, 황칠 등 다양한 약용 식물의 보고이다. 또 전남 전역에 걸쳐 펼쳐져 있는 숲, 섬, 갯벌, 해양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전통적인 자연 치유 환경으로서 손색이 없다. 자연환경과 전통 치료, 그리고 현대의 첨단 의학학을

접목하게 되면 전남은 자가 치유 역량을 극대화하는 의약학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지역이다.

전남도가 풍부한 생물 자원과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생산·치료·휴양을 연계한 ‘전남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지정은 목표포 매진하는 것도 이러한 기반에 기인한다. 전남 첨단 의료 복합 단지는 ‘질 높은 의료, 질 높은 의약, 편안한 치유’를 통해 미래 첨단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전남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오송·대구·전남을 잇는 ‘비수도권 첨단 의료 삼각축’을 형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의료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의약학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도로 집약된 자본과 지식 및 연구 개발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이다. 고용 효과도 매우 높고, 한 곳에만 모여 있을 필요도 없으며, 로봇으로 대체되기도 쉽지 않은 산업이다. 전남이 새롭게 도약하여 새로운 고용, 특히 청년에게 양질의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전남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지역민이 그 수혜를 보다 넓게 나눌 수 있는 바이오메디컬 허브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처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